

지적장애인의 불안감소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Tea-Culture Therapy Program for the Anxiety Reduction of Mentally Retarded People

김인숙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n-Sook Kim

Tongmyong University

I. 서론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다(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2003.5.1.). 지적장애인들의 실질적 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립과 일상생활 및 사회에 필요한 기능중심의 훈련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사소통이나 불안 감소 등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차문화치료는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지적장애인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여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치료도구가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응어리진 감정을 표출하게 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김인숙, 2011)[1]. 따라서 본 연구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들의 불안해소에 미치는 효과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적용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군과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P시의 장애인복지관에 소속된 장애인 지적장애 1~3등급(사회적응반 소속) 22명(실험군 11명, 대조군 11명을 무작위 배치)으로 하였다.

장애인들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참여자 집단의 불안 척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장애인 불안 척도는 Spielberger(1972)[2]가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IC)을 김정택(1978)[3]이 번안, 재구성한 것을 본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3점 평정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

수록 불안이 높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불안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 현장전문가, 실무자 및 차문화심리상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주에 1회기씩 8주간 진행되었으며, 각 회기당 시간은 90분간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11명의 소수참여자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 척도에 대한 사전, 사후 점수 차이 검증을 위해 윌콕슨 부호-서열 검증(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분석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의 불안 척도 점수와 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윌콕슨 부호-서열검증의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사전, 사후 불안 척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 = -3.09^{**}$). 불안 척도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46.82(SD 2.32)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34.55(SD 2.98)로 나타나 12.27 낮아졌다.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인들의 불안 척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조군의 사전, 사후 불안 척도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44.27(SD 5.66)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43.73(SD 5.55)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 사후 불안 척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적장애인들이 새로운 차문화 환경 속에서 진실한 자아를 알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을 획득하게 하여 장애인 재활효과와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인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합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효과적인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인(실험군 11명, 대조군 11명)으로 한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불안 척도 점수의 차이를 평가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참여자 집단의 불안 수준의 변화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인들의 불안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향후 적용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면, 장애인들이 가지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과 불안감 감소에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프로그램의 일회성 진행보다는 좀 더 장기적 시각에서 주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정서적 안정과 불안감 감소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적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 사회가 함께 연계된 광범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실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차문화 치료사의 양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 [1] 김인숙,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학생 불안감 감소효과”, 부산여자대학 행정논문, Vol. 32, pp. 307-327, 2011.
- [2] C.D. Spielberger,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1972.
- [3] 김정택,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8.